

<http://dx.doi.org/10.17703/JCCT.2022.8.5.93>

JCCT 2022-9-11

##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영향요인

### Influencing Factors of Nursing Students' Career identity in COVID-19

홍은정\*, 이지아\*\*

Eun-Jeong Hong\*, Ji-A Le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위기 상황에서 대학생활적응, 자기주도적 학습 및 진로정체성을 조사하고 진로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은 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D광역시, C시에 있는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19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진로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생활적응과 지도교수와의 만남 횟수였으며, 설명력은 37%였다. 따라서 COVID-19 위기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생활 적응을 증진시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교수자는 학생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지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학생, 간호, 학습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conducted to investigate college life adaptation, self-directed learning, and career identity in the COVID-19 crisis situation, an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career identity. The subjects of this study and data collection were from September 1 to October 31, 2021, with 197 nursing students enrolled in two universities in D and C citie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actors affecting career identity were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the number of meetings with academic advisors, and It's explanatory power was 37%.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in the COVID-19 crisi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 program to promote college life adaptation, and it is necessary for professors to build a support system through continuous encounters with students.

**Key words** : Students, Nursing, Learning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진로정체감은 진로에 대한 건강한 자기 확신 정도를 말하며 직업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갖추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1]. 특히 간호학과의 경우 타 전공에

비하여 간호사라는 직업으로 진로가 한정되어 있는 측면이 강하고 비교적 취업률도 높기 때문에 간호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은 유독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않고, 직업에 대하여 명확하고 뚜렷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진로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2,3]. 그러나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정회원, 한남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정회원,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7월 18일, 수정완료일: 2022년 8월 13일

게재확정일: 2022년 8월 31일

Received: July 18, 2022 / Revised: August 13, 2022

Accepted: August 31, 2022

\*\*Corresponding Author: cocoleeja@gmail.com

Dept. of Nursing, Gyeongbuk College of Health, 168, Daehak-ro, Gimcheon-si, Gyeongsangbuk-do, South Korea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향후 간호사로서 직업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간호대학생이 대학생활에서 간호사로서의 진로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19년 11월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이하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는 전세계 유행과 함께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혼란은 교육분야에서도 발생되어 주를 이루던 대면수업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다[4]. 사회적 거리두기와 팬데믹 상황으로 비대면 수업 진행이 불가피하였으며, 이와 같은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해 학생들은 대학생활의 적응과 학습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5].

특히 간호대학생의 경우 이론과 임상실습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에서 전공 이론과 전문적 실습 교육을 통하여 간호사로서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진로정체감을 강화하고 확립해 나가게 된다[6]. 특히 임상실습을 통해 다양한 환자, 질병, 의료진들과의 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다양한 의학적 지식, 술기, 의사소통 등 다학제간의 학문을 습득하여 급변하는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간호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임상수행능력[7]을 갖추게 되는데, 이러한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전문직에 대한 바람직한 직업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며[8], 자기주도학습 역량이 임상수행능력 함양에 영향을 미친다[9]. 그러나 COVID-19로 인하여 실습교과목마저도 온라인 수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였고, 충분한 준비 없이 임상실습 교과목을 포함한 전면적 온라인 수업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학습자의 개인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었다[10]. 실습 위주의 교과목에서 비대면 수업은 학습자와 교수가 분리된 상황에서 상호작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에 따라 교육의 효과가 현격히 차이가 나게 된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 COVID-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변화된 학습 환경에서 발현되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예비 간호사로서 진로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대학생의 경우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기로써 대학 문화 및 학업을 수행하는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적응해 나가며 개인의 내적 성장과 사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대학생활적응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12]. 그러나 COVID-19가 발생된 후 대학생활에서의 많은 변화가 발생되었다. 캠퍼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행동 및 선택에 대한 제한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하여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13]. 선행연구에 따르면 캠퍼스 활동의 제한으로 인하여 우울감 및 불안, 분노, 혼란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COVID-19 이전의 대학생활에 적응한 재학생의 경우 갑작스럽게 변화된 대학생활 환경에 대한 새로운 적응이 요구되며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13]. 이러한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은 대학 생활에 흥미를 잃게 되어 그에 따른 자아존중감 역시 낮아질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하여 진로정체감의 혼란 등이 유발될 수 있다[2]. 따라서 본 연구는 COVID-19라는 신종 전염병 유행 상황에서 변화된 대학생활적응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여 정체감 형성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중재를 개발하기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한다.

신종 전염병은 대학생들에게 다방면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WHO에 따르면 신종전염병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신종전염병인 COVID-19로 인해 대면에서 비대면이라는 교육방법의 변화가 생겼고 자기 주도학습 능력이 더욱 요구되며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자기 주도학습 능력과 대학생활적응이 진로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여 현 시대의 간호대학생이 진로정체감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자기주도학습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COVID-19 상황에서 임상실습과 강의형태의 변화 등을 포함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자기주도학습 및 진로정체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 3)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자기주도학습 및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자기주도학습, 진로정체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D광역시, C도에 소재한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재학생으로 2020년 1학기부터 2021년 1학기 기간 중 교과과정에서 임상실습의 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의 표본크기는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투입독립변수를 11개로 하였을 때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를 유지하기 위한 표본 수는 178명이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명에게 자료수집하였고, 답변이 완료되지 않은 부적절한 설문 제외 총 192부가 결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 3. 연구도구

#### 1)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Holland, Daiger와 Power [1]가 개발한 My Vocational Situation (자기 직업 상황)의 하위척도인 정체감 척도 문항을 Kwon과 Kim [14]이 간호대학생의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4점 척도이며 채점을 역환산 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의 Likert척도로 6번 문항은 역채점과 달리 처리하여 채점하였으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won과 Kim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1이었다.

#### 2)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Park과 Kim [15]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3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으로는 대인관계 9문항, 전공

만족 9문항, 전공 수월성 5문항, 대처역량 5문항, 취업 준비 3문항, 학업 충실도 3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부정적인 문항은 역배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92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3이었다.

#### 3) 자기주도학습

자기주도학습은 성인교육 연구와 사회교육 현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Guglielmino [16]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인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SDLRS)를 Yoo [17]가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자기주도학습의 6가지 하위 내용으로 학습에 대한 애착, 학습자로서의 자기확신, 도전에 대한 개방성, 학습에 대한 호기심, 자기이해,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으로 나뉘며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전체 .94이었으며, Yoo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7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9이었다.

### 4.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H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21-02-05-0811)을 받은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상자는 링크된 인터넷 상의 파일 주소(uniform resource locator, URL)로 접속시 Google Form을 활용한 상세 연구설명문을 보고 동의서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참여의 의사가 있는 경우 구조화된 설문에 자기 기입식으로 응답하여 설문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응답이 완료된 자료는 연구자의 Google 계정 데이터 서버에 자동 저장되었고, 설문에 참여한 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빈도분석 하였다.
- 2)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자기주도학습, 진로정체감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자기 주도학습, 진로정체감의 평균 차이 분석은 t-test, ANOVA를 실시하고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학생활적응, 자기주도학습,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및 대학생활적응, 자기주도학습, 진로정체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ollege life adjustment, self-directed learning, career identify

(N=192)

Characteristics/Variables	Categories	n (%) Mean±SD
gender	male	32 (16.7)
	female	160 (83.3)
age(year)		24.17±4.29
grade	3rd	78 (40.6)
	4th	116 (59.4)
meeting the professor during the semester	0	12 (6.3)
	1-2	162 (84.4)
	3-4	15 (7.8)
	5≤	3 (1.6)
clinical practice type from 2020-1	At a hospital	2 (1)
	At a hospital & school	15 (7.8)
	At a school & Untact	3 (1.6)
	At a hospital & school & Untact	172 (89.6)
lecture type from 2020-1	At a school	12 (6.3)
	At a school & Untact (real-time video & recording)	161 (83.9)
	Untact (real-time video & recording)	19 (9.9)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very satisfied	30 (15.6)
	satisfied	88 (45.8)
	moderate	71 (37)
	dissatisfied	3 (1.6)
Satisfaction for lecture	very satisfied	25 (13.0)
	satisfied	101 (52.6)
	moderate	61 (31.8)
	dissatisfied	4 (2.1)
	very dissatisfied	1 (0.5)
major selection motivation*	For employment	117 (43.3)
	According to the score	13 (4.8)
	Recommendations from people around you	51 (18.9)
	Voluntary motivation	88 (32.6)
	etc	1 (0.4)
college life adjustment		3.68±0.56
self-directed learning		3.53±0.46
career identify		2.60±0.50

\*multiple response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대학생활적응, 자기주도 학습, 진로정체감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자 160명(83.3%), 남자 32명(16.7%)으로 여자가 더 많았고 평균 연령은 24.17세이었다. 4학년이 116명(59.4%), 3학년이 78명(40.6%)이었으며, 학기당 지도교수와 의 만남 횟수는 1~2회가 162명(84.4%)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 1학기부터 경험한 임상실습 유형은 병원, 교내, 비대면(온라인 등) 병행으로 실습한 경우가 172명(89.6%)로 가장 많았고, 2020년 1학기부터 경험한 수업의 유형은 대면과 비대면 수업(실시간, 녹화 수업) 병행이 161명(83.9%)으로 가장 많았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88명(45.8%)로 가장 많았고, 수업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101명(52.6%)으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과 선택 이유는 '취업용이'가 117명(43.3%)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평균은 5점 만점에  $3.68 \pm 0.56$ 점, 자기주도학습은  $3.53 \pm 0.46$ 점이었으며, 진로정체감은 4점 만점에  $2.60 \pm 0.50$ 점이었다.(Table 1).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자기주도학습, 진로정체감 정도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학년( $t = -3.56, p < .001$ ), 임상실습 만족도( $F = 6.72, p < .001$ ), 수업 만족도( $F = 13.86, p < .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주도학습은 임상실습 만족도( $F = 4.01, p = .008$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진로정체감은 학년( $t = -2.61, p = .010$ ), 지도교수 만남 횟수( $F = 4.85, p = .003$ ), 임상실습 만족도( $F = 4.48, p = .005$ ), 수업 만족도( $F = 7.72, p < .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지도교수 만남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가 0회, 1-2회의 경우보다 진로정체감이 높았다.(Table 2).

#### 3.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자기주도학습,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

대학생활적응과 자기주도학습( $r = .64, p < .001$ )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대학생활적응과 진로정체감( $r = .54, p < .001$ )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기주도학습과 진로정체감( $r = .26, p < .001$ )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 4.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학년, 지도교수와 만남 횟수, 임상실습 만족도, 수업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였으며 명목변수는 가변수 처리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다중공선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Tol)는  $0.40 \sim 0.84$ 이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9 \sim 2.52$ 로 나타났으며, 잔차값(Durbin-Watson)은 2.00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F = 9.62, p < .001$ ), 설명력은 37%이었다( $\text{adj. } R^2 = .37$ ).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대학생활적응( $\beta = .58, p < .001$ ), 지도교수 만남 횟수가 5회 이상( $\beta = .22, p = .001$ ) 순으로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 IV. 논의

COVID-19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교육계는 전에 없던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및 자기주도 학습과 진로정체감 정도와 이들 변수 간에 관계를 파악,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변화된 교육환경에서 확고한 진로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평균 점수는 3.68점으로 An과 Lee[18]의 연구 3.68점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COVID-19 이전에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9]에서의 3.37점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19]에 따라 오히려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학습환경을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으며, 현장에서의 실습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켜줌으로써 학업스트레스가 감소되어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해 차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도 동일한 도구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일반적 특성 중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관련하여 비대면 실습 시 지나치게 많은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자기주도학습, 진로정체감 정도의 차이  
Table 2. Mean differenc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2)

Characteristics	Categories	college life adjustment		self-directed learning		career identify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gender	male	3.66±0.70	-0.19 (.851)	3.56±0.51	0.33 (.741)	2.57±0.50	-0.43 (.666)
	female	3.68±0.53		3.53±0.45		2.61±0.50	
grade	3rd	3.51±0.54	-3.56 (<.001)	3.48±0.47	-1.43 (.155)	2.49±0.50	-2.61 (.010)
	4th	3.80±0.54		5.57±0.44		2.68±0.48	
meeting the professor during the semester	0a	3.58±0.45	0.76 (.518)	3.66±0.41	0.60 (.614)	2.45±0.55	4.85 (.003) a,b<d
	1-2b	3.67±0.56		3.52±0.46		2.57±0.46	
	3-4c	3.86±0.54		3.60±0.49		2.85±0.61	
	≤5d	3.81±0.65		3.69±0.49		3.43±0.33	
clinical practice type from 2020-1	At a hospital	3.96±0.23	0.44 (.728)	3.77±0.69	0.50 (.685)	2.61±1.06	0.98 (.404)
	At a hospital & school	3.57±0.49		3.64±0.42		2.39±0.42	
	At a school & Untact	3.56±0.57		3.43±0.59		2.72±0.52	
	At a hospital & school & Untact	3.69±0.57		3.52±0.46		2.62±0.50	
lecture type from 2020-1	At a school	3.65±0.52	0.27 (.761)	3.58±0.44	0.93 (.397)	2.57±0.54	0.80 (.451)
	At a school & Untact (real-time video & recording)	3.67±0.57		3.52±0.46		2.59±0.49	
	Untact (real-time video & recording)	3.77±0.48		3.66±0.42		2.74±0.51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very satisfied	3.97±0.54	6.72 (<.001)	3.74±0.47	4.01 (.008)	2.62±0.58	4.48 (.005)
	satisfied	3.74±0.53		3.56±0.43		2.72±0.44	
	moderate	3.48±0.53		3.41±0.46		2.44±0.48	
	dissatisfied	3.72±0.68		3.62±0.34		2.72±0.70	
Satisfaction for lecture	very satisfied	4.05±0.49	13.86 (<.001)	3.66±0.47	1.79 (.132)	2.81±0.53	7.72 (<.001)
	satisfied	3.81±0.44		3.57±0.38		2.70±0.46	
	moderate	3.33±0.58		3.43±0.55		2.34±0.44	
	dissatisfied	3.32±0.20		3.42±0.06		2.66±0.52	
	very dissatisfied	4.38		4.00		3.29	

표 3. 대상자의 대학생생활적응, 자기주도학습,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  
Table 3. The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192)

Variables	college life adjustment	self-directed learning	career identify
	r (p)	r (p)	r (p)
college life adjustment	1		
self-directed learning	.64 (<.001)	1	
career identify	.54 (<.001)	.26 (<.001)	1

표 4.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요인  
 Table 4. Factors influencing career identify

(N=192)

Variables	B	SE	$\beta$	t (p)	Tol	VIF
(constant)	1.56	.51		3.08 (.002)		
college life adjustment	.46	.08	.58	6.00 (<.001)	.54	1.84
self-directed learning	-.091	.085	-.083	-1.07 (.287)	.44	2.26
grade	reference: 4th					
3rd	-.04	.06	-.04	-0.66 (.512)	.84	1.19
meeting the professor during the semester	reference: 0					
1-2	.07	.12	.06	0.60 (.549)	.40	2.52
3-4	.30	.16	.16	1.89 (.060)	.45	2.21
5≤	.87	.27	.22	3.28 (.001)	.74	1.35
F (p)	9.62 (<.001)					
Adj.R <sup>2</sup>	.37					
Durbin-Watson	2.00					

과제물의 부담, 이론 강의와의 혼란스러움, 제한적 경험으로 인한 실습 스트레스[20]를 줄임으로써 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실습지도 방안이 필요하겠다.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평균 점수는 3.53점으로 간호학과 전체 학생을 조사한 Yu와 Kang[21]의 연구 3.49점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3, 4학년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써 고학생의 경우 신입생보다 전공학습의 경험이 많음으로써 자기주도학습 능력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의 평균 점수는 2.60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Cho와 Cho[22] 연구 2.80점 보다 낮았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만을 조사한 연구로써 임상실습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경험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어 결과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 중 학년에 따라 진로정체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간호학 전공과목과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직접적인 사회 진출의 시기를 앞두고 있는 4학년이 3학년에 비해 직업에 대한 자신의 비전, 관심, 역량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진로정체감은 현재 선택한 진로에 대한 만족도와 미래 진로에 대한 성공기대감에 비례하여 높아진다고 하였다[23]. 또한 취업용이 혹은 타인의 권유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보다 자신의 적성과 취미를 고려하여 선택한 경우가 직업정체감이 높다[24].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 간호학과 선택 동기 조사 결과 취업용이가 117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볼 때 현재 대학 진학시 학과의 선택에 있어서 취업

관련으로 인한 선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행 연구[25]에서는 외적 동기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의 욕구를 충족시키므로써 자신의 선택을 내면화하여 전공에 대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며, 목표와 통합될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가족 등 영향력이 있는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관계 욕구가 충족되고, 자신의 진로목표에 지지를 얻는다면 외적동기로 선택한 행동이 내면화되는데 도움이 되며,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학과 입학 후 자신의 선택에 대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변인들의 지지가 필요하며, 지도교수와의 만남 횟수에 따라 진로정체감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본 연구 결과에 따라 지도교수와의 만남을 통해 충분한 지지를 받음으로써 진로정체감 확립을 기대할 수 있겠다. 또한 지도교수는 상담시 친구, 부모 등의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임상실습 만족도와 수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간호학과는 타과와 달리 이론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교과과정을 진행하면서 먼저 간호사라는 직업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적성을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임상실습과 수업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저하되고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3]. 그러므로 COVID-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지속적인 실습과 수업 형태의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수업방식의 장단점 비교 및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구축하여 임상실습과 수업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진로정체감은 대학생활적응, 자기주도 학습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대학생활 적응은 자기주도학습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활적응과 직업정체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 결과[24]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대학생활적응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 결과[26]와 일치한다. 다만 진로정체감과 자기주도 학습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이 강할수록 자신이 속한 조직에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몰입을 한다는 연구 결과[27]와 관련하여 자신이 유능한 학습자라는 신념이나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확신 등이 간호학생으로서 자아개념을 지각하도록 해주어 진로정체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학생활적응, 지도교수 만남 횟수였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7%였다. 진로정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대학생활적응이었으며 이는 Lee[24]의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이 직업정체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간호대학생이 진로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영향요인을 조사한 연구[18]에서는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한학기 동안 교수와의 면담 횟수가 4회 이상인 군이 1회 이하인 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지도교수 만남 횟수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관련이 있으며 지도교수와의 만남 횟수 요인은 진로정체감과 관련하여 연구된 선행연구의 부재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교수신뢰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27]의 결과와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결정함에 있어 교수와의 관계 및 상호작용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28].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이 교수와의 관계와 신뢰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며 이는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변화해야 했던 교육상황에서 진로정체감의 영향요인을 파악

하고자 했던 연구로써 임상실습 운영 방식, 수업 운영 방식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각 변수들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An과 Lee[18]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운영 방식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과 그 결과가 상이하었다. 하지만 COVID-19가 종식된 후에도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상황이 반복될 수 있으며, 비대면 강의의 시공간 제약으로부터의 벗어남 등의 장점들로 인한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COVID-19 이후에도 대면과 비대면 강의를 공존하는 사회가 될 것임이 예상되며, 더불어 계속해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잘 적응하는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수자는 학생과의 유기적인 면담 등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진로정체감을 확립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COVID-19라는 신종 전염병에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활적응 및 자기주도학습을 변수로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확립을 돕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정체감은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명확한 확신을 주며 이는 직업에 대한 흥미와 몰입도, 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대학생활적응,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증진함으로써 간호사로서의 진로정체감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 V. 결 론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생활적응, 지도교수 만남 횟수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설명력은 37%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생활적응을 증진시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며 교수자는 학생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지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본 연구는 일부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추후 연구 대상자를 확대하여 영향요인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의 전후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양한 변수를 추가한 진로정체감의 영향요인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1] J.J. Holland, D.C. Gottfredson, P.G. Power.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Vol. 39, No. 6, pp 1191, 1980. <http://doi.org/10.1037/h0077731>
- [2] H. Cho, G.Y. Lee.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20, No. 2, pp. 163-173, 2006
- [3] J.S. Jung, M.J. Jeong, I.Y. Yoo.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1, pp. 27-36, 2014.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1.27>
- [4] S.M. Kim. "Analysis of press articles in Korean media on online education related to COVID-19."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21, No. 6, pp. 1091-1100, 2020. <https://doi.org/10.9728/dcs.2020.21.6.1091>
- [5] G.C. Lee, J.H. Ahn. "College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COVID-19 pandemic."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1, No. 12, pp. 142-152, 2020. <https://doi.org/10.5762/KAIS.2020.21.12.142>
- [6] M.J. Chae, H.J. Jung.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n the 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10, No. 3, pp. 213-233, 2016. <https://doi.org/10.12811/kshsm.2016.10.3.213>
- [7] J. Mara, M. McDonald, H. Gillespie, H. L.Miles. Brown. "Challenging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s: Experience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 14, No. 2, pp. 208-213, 2014. <https://doi.org/10.1016/j.nepr.2013.08.012>
- [8] M.K. Jeon.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 Vol. 7, No. 4, pp. 119-129, 2013. <https://doi.org/10.12811/kshsm.2013.7.4.119>
- [9] M.S. Kwon. "The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3, pp. 387-394. 2011. <https://doi.org/10.5977/JKASNE.2011.17.3.387>
- [10] S.M. Lee, S.Y. Mun, Y.S. Moon, H.Y.S. Kim, N.H. Kim. "A Study on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in Online Learning Caused by COVID-19: A Moderating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Journal of Competency Development & Learning*. Vol. 16, No. 1, pp.169-199, 2021. <https://doi.org/10.21329/khrd.2021.16.1.169>
- [11] J.H. Park, H. Lee. "The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and Learning Commitment on Learning Persistence Intention in Online Learning: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Motiv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9, No. 4. pp. 9-17. 2021. <https://doi.org/10.17703/IJACT.2021.9.4.9>
- [12] K.A. Lee, H.W. Son. "A study on the college adaptation and core competencies of students in post corona er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2, No. 5, pp. 239-254, 2021. <https://doi.org/10.15207/JKCS.2021.12.5.239>
- [13] H.J. Yang.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emotions according to the degree of self-elasticity of college freshmen in COVID-19."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6. No. 3, pp.75-82, 2020. <https://doi.org/10.17703/JCCT.2020.6.3.75>
- [14] Y.H. Kwon, C.N. Kim. "Effect of a Ready Planned Self 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Vol. 13, No. 2, pp.216-229, 2002.
- [15] S.Y. Park, J.H. Kim. "Campus life adaptation scale for nursing undergraduate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Nurse Education Today*. Vol.79, pp.56-62, 2019. <https://doi.org/10.1016/j.nedt.2019.05.014>
- [16] L.M. Guglielmino.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University of Georgia. 1977.
- [17] K.O. Yoo, J.W. Cheong. "Demographic and Socio-Psychological Variables to Adults' Self-direction in Learning." *Korean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 4, No. 1, pp.119-149, 1998.

- [18]H.R. An, J.Y. Lee. "Influencing Factors of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Adjustment in COVID-19."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1, No. 3, pp. 34-45, 2021. <https://doi.org/10.22156/CS4SMB.2021.11.03.034>
- [19]S.J. Lee, J.Y. Park. "The Effects of Grit and Stress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2, 2018. <https://doi.org/10.14400/JDC.2018.16.2.269>
- [20]Y.E. Jang, K.S. Han. "Online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in COVID-19 Situation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21, No. 8, pp.702-714, 2021. <https://doi.org/10.5392/JKCA.2021.21.08.702>
- [21]M. Yu, K.J. Kang.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academic motivation on self-directed learning in an on-contact learning environment during COVID-19: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flow."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11, pp. 60-72, 2021. <https://doi.org/10.5762/KAIS.2021.22.11>
- [22]J.H. Cho, O.H. Cho. "The Effect of Isolation, Depression,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on Career Ident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9, pp. 435-444, 2021. <https://doi.org/10.14400/JDC.2021.19.9.435>
- [23]S. Lee. "Korean college students' vocational identity: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demographic and career-related variable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19, No. 1, pp. 141-154, 2006.
- [24]M.R. Lee MR, M.J. Kim. "The Influences of College Adaptation, Satisfaction of Major and Clinical Practice on Vocat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6, pp. 197-208, 2018. <https://doi.org/10.5762/KAIS.2018.19.6.197>
- [25]Y.H. Kwon, O.G. Kwag. "Effect of ready planned small group collaboration learning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1, No. 11, pp. 4441-4448, 2010. <https://doi.org/10.5762/KAIS.2010.11.11.4441>
- [26]H.S. Park, K.S. Jeong.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reativity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4, pp. 549-557, 2013.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4.549>
- [27]N.Y. Yang, S.Y. Moo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Self-directed Learning with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3, No. 4, pp. 473-480, 2007.
- [28]E.T. Pascarella, P.T. Terenzini. *How college affects students: Findings and insights from twenty years of research*. ERIC. 1991